

농촌진흥청이 달라진다

연구는 활성화, 지도는 전문화 ...중앙·지방 역할분담
「연구·지도체계 개편방안」마련 토론회 개최

농촌진흥청이 '변화'를 선언했다. 세계화·지방화의 조류편성은 물론, 당장 내년부터는 일선 시군의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들이 모두 지방직 공무원으로 직급변동이 이뤄지는데 따라 체제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7월 15일 이같은 변화를 전제로 '연구·지도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앞으로 농촌진흥청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했다.

학계와 정부출연연구소, 농진회 및 농촌진흥청의 연구·지도직 관계관 등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농촌진흥청이 그동안 추진해온 시험연구사업과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성과와 현안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개방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정립과 현재 추진중인 연구·지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지도체계 개편방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사업 개편방안

① 연구과제의 국가차원 총괄조정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진흥과 농림수산기술 중·장기 개발목표에 맞추어 효율적인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기술정책심의회에서 연구대상 과제를 총괄조정함으로써 국가예산의 효율적 배분으로 중복 낭비적 투자를 막는다.

② 대학·민간·산업체 참여유도

대형연구, 농업특정연구, 국제공동연구 과제에 대학, 민간 및 산업체의 전문연구인력을 총동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산·학·관·연의 연구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연구비 지원이 가능토록 시험연구 규정을 개정하여 종합·단일화하며 대학, 민간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산업체를 연계한 협동연구체계를 확립한다.

③ 주변 첨단기술 농업분야 조기접목

전자, 전기, 기계, 화학등 주변 첨단기술 분야중 일부분에 대학교수는 참여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참여

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므로 과제 공모시부터 교수 및 기업체의 전문인력이 과제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과감히 개방한다.

④팀중심 과제중심 연구로 전환

현행 1인 1항목 부분기술을 연구하는 체제를 주요 팀중심 과제중심 연구로 전환하여 주요 품목별 일관 기술 개발목표를 설정, 추진하며 영농현장과 연계하여 현장감 있는 연구과제를 중점 발굴, 추진한다.

⑤연구실명제 도입 연구자 사기진작

앞으로는 획기적인 연구성과 거양을 위해 연구자가 퇴직 또는 사후에도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연구실명제를 도입한다. 현행 연구자에게 1백만원 이내에서 개인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연구업적 평가제를 도입, 우수기술 개발자 및 연구기관에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조직과 개인의 연계평가로 선의의 경쟁 및 공동연구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서는 특허출원,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설정 및 산업화를 추진하고 정수된 기술사용료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추가지급하고 소속연구기관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한다.

⑥중앙과 지방연구기관의 역할분담

중앙연구기관은 미래지향적 기반기술과 위험부담이 크고 장기적인 대규모 연구개발비가 소요되는 기술, 환경보전 등 공익차원에서 해결해야할 기술, 유전공학기법 이용 등 기초과학기술의 실용화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 보급한다.

대신 도농촌진흥원이나 지역특화시험장 등 지방연구기관은 자원절약형 안전농산물 생산과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에 관한 기술 및 수출유망 특화작목의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에 주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연구기관의 역할 분담으로 상호 보완적인 협동연구체제를 구축하여 우리농업을 종합생물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농촌지도사업 개편방안

①품목별 전문화 영농실현

품목별 전문화·상업화 영농에 적합한 종합지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다. 작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특성화 대학의 연구모임과 연계하여 품목별 전문화를 실현하고, 경영주체별·기술수준별로 지도내용과 방법을 다양하게 차별화시켜 지도대상을 개인지도에서 그룹지도 체제로 전환하고 현장으로 기술 및 아이디어 발굴 지역연구팀을 구성 운영한다.

②모든 정보를 농가에 직접 제공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농업종합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종합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이를 위해 국내외 최신 농업기술 및 경영, 시장정보 등 데이터베이스의 수집관리 확충과 보급체계를 개선한다. 또 천리안 등을 이용,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정보 종합시스템(ATINS)을 통하여 모든 정보를 총망라하여 농가에 직접 제공,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겠다는 것.

③지방직화에 따른 사기진작

1997년 1월부터 농촌지도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라 국가직 농촌지도공무원이 지방직 농촌지도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됨에 따른 사기진작 방안이다.

우선 승진이 단절된 지방 지도사에 대해 도농촌진흥원 계장급을 농촌지도사에서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직급을 조정한다.

또 특별·광역시, 통합시 지도소장을 국가 4급에서 지방 3급으로, 시군농촌지도소장을 국가4급에서 지방4급으로, 통합시 농촌지도소 주무과장을 국가 5급에서 지방 4급으로 직위를 지정한다.

한편 지방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4년 1기 중앙단위 전문교육을 제도화하고 중앙과 지방지도기관간의 역할분담으로 상호보완적 협동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간다. **농업정보**